

한다. 社會構造란 인간의 行爲나 相互作用에 있어서 찾아 볼 수 있는 어떤 類型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社會構造란 類型화된 行爲樣式的 체계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社會變動은 사회관계의 유형의 변화 역할과 지위의 내용의 변화, 集團간의 관계의 변화, 社會 및 集團의 權力構造, 階層構造 및 制度的構造등의 변화를 뜻한다.

社會變動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文化變動(Cultural Change)이 있다. 文化變動은 文化의 주요한 要素들 즉 價値, 規範, 道德, 慣習, 知識, 信仰 등에 있어서의 變化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文化變動과 社會變動을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社會變動을

文化變動의 一部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文化變動을 社會變動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用語使用의 혼동은 주로 兩者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文化變動은 대개의 경우 社會變動을 수반하게 마련이고, 社會變動은 대개 文化變動을 수반한다. 文化의 변동이 없이 社會變動을 생각하기 어렵고 社會變動을 수반하지 않는 文化變動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兩者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概念的으로는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變動이라 함은 어떤 對象이 時間이 흐름에 따라 그 상태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동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考慮해야 할 몇가지 側面이 있으며, 社會變動에 있어서도 例外가 될 수 없다.

變動의 時空間的 次元: 어떠한 社會變動이건 그것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그 時間的 次元과 空間的次元을 명백히 해야 한다. 우선 시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변동인지 단기간에 일

사회변동과 계획적 변화 및 역사적 배경

안 계 춘 박사

<연세대학교 문화대학>

社會變動과 計劃的變化

社會變動을 어떻게 定義하든 현대사회는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變動은 직접·간접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社會의 각부분에 再適應을 要請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여러가지 變動은 미리 “計劃된”것이라는데 그 특색이 있다. 먼저 社會變動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社會變動의 意味 및 次元

社會變動(Social Change)이라 함은 社會構造(Social Structure)에 있어서의 變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社會構造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어난 변동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간혹 변동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이 時間的 次元을 명백히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空間的으로는 서로 다른 社會에 걸쳐 일어나는 變動, 한 社會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變動, 한 社會의 어느 部分地域에서 일어나는 變動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의 組合(Combination)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의 변동이 연구 대상으로 될 수 있다.

變動의 單位: 變動의 연구에서는 또한 變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물론 한 社會全體가 변동의 단위로 간주될 수도 있고 어떤 特定制度가 단위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役割의 내용이나 개인 및 집단간의 相互作用의 類型이 단위가 될 수도 있고, 價値觀이나 規範의 내용 및 그 機能이 단위로 취급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연구자는 항상 變動의 單位를 명백히 규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比較할 때에도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變動의 速度: 變動의 또 다른 한 次元은 變動의 速度이다. 앞의 여러가지 次元이 명백히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變動은 매우 빠른 速度로 진행될 수도 있고 완만한 速度로 진행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變動의 速度는 社會나 文化의 각 부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變動의 速度(變動率)는 변동의 유형을 구분할 때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간주되는 바, 革命이나 進化의 구분이 그 예이다. Oghurn의 文化遲滯說(Hypothesis of Cultural Lag)도 文化의 각 부분간에 변동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착안하여 발전시킨 학설이다.

計劃的變動과 偶然的變動: 社會變動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無意圖的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있고, 미리 計劃을 세워서 그 計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文化의 傳播, 社會體제의 각부분간의 상호작용, 개인들의 意思決定등의 결과로 社會構造나 文化類型이 달라지는 것이 前者에 속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경제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정치체도를 개혁하거나 都市計劃을 세워 집행하는 것들은 後者に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現代社會에서는 計劃된 變動의 측면이 더욱 중시되고 많아 진다는 것은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社會變動의 연구에서는 항상 그것이 미리 計劃된 것인가 아닌가를 區別하고 계획된 것이라면 얼마만큼이 計劃된 것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變動의 重要性評價: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사회변동 중에서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을 연구한다. 그 변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변동의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지금까지 사용된 기준들을 보면 ① 그 변동에 관련된 人口의 數 또는 比率, ② 그 변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社會的地位, ③ 그 변동이 社會體制에 미치는 機能, ④ 그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제의 부분 및 그 영향의 결과, ⑤ 그 變動과 관련된 文化類型의 普遍性的의 水準 등을 들 수 있다.

變動과 價値判斷: 어떠한 變動이던 그 변동의 방향에 대한 價値判斷이 있을 수 있다. 그 변동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나 아니나, 向上된 것이나 退步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이러한 가치판단 자체는 물론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科學의 영역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社會變動을 연구하는 社會科學者들은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中立의 개념으로서 變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變動이라는 개념은 변화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記述, 說明한다는 뜻을 함축한 용어이며 어떠한 가치판단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社會變動에 價値判斷을 포함시켜 進歩(progress), 發展(development) 등의 말로 표현하는 예가 흔히 있다. 오늘날 社會科學者들은 진보란 개념을 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發展은 社會變動의 한 類型으로서 자주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2. 社會變動에 관한 諸理論

社會變動에 관한 理論은 우선 研究者가 社會에 대하여 미리 가지고 있는 前提나 이미지에 따라 구분된다. 이러한 前提나 이미지를 模型

(model)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研究者가 社會에 대하여 設定하고 있는 模型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社會變動에 대한 說明도 다르게 된다. 이러한 模型중에는 社會나 인간이 일정한 단계를 밟아 가면서 進化해 간다고 보는 進化論의 模型, 社會를 生物有機體에 類推하여 그 構造와 部分間의 相互關聯性을 중시하는 有機體模型, 有機體모형의 한 形態로서 社會를 均衡狀態를 維持하고 있는 (또는 하려는) 體制(system)로 보는 均衡模型구형,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社會를 하나의 葛藤關係로 보는 葛藤模型등이 있다. 이러한 模型들은 모두 長短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전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자기의 연구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模型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1. 社會變動의 原因에 관한 諸理論

社會變動에 관한 이론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 온 부분이 바로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왜 사회변동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이론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葛藤 (Conflict) : 이것은 특히 갈등모형에 입각하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강조되었다. 어떤 價値나 地位, 權력이나 資源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사람, 두 집단 또는 두 國家나 社會가 서로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할 때 그들은 葛藤關係에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葛藤關係가 社會變動을 일으키는 중요한 根源이라고 보는 것이다. 「칼· 맑스」도 이 葛藤關係를 중시한 사람이었고, 「다렌들프」(Ralf Dahrendorf)나 코오저 (Lewis Coser) 같은 사회학자들도 社會變動에 있어서 葛藤을 중시하였다.

變動의 體制內在性 : 社會變動의 원인이 社會體制안에 內在해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社會體制도 그것이 變動하도록 하는 씨를 그 자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로킨」(Sorokin)이나 「슈윙글러」(Oswald Spengler)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內在的 變動要因을 중시한 사람들이다.

技術 및 經濟的要因 : 經濟的要인이나 技術의 발달 및 발명을 社會變動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

가 있다. 특히 技術(technology)의 발달이 社會構造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下部構造(經濟的 要因)가 上部構造(非經濟的 側面)를 결정한다는 이론도 經濟的 要因을 중시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社會科學者들도 經濟的 要因이나 技術이 社會變動의 주요한 原因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맑스나 엥겔스처럼 決定論의 態度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價値觀과 觀念 :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觀念, 價値觀, 理想, 信念 또는 이데올로기가 社會變動을 추진하는 주요한 要素라고 보는 것이다. 個人들의 價値觀이 달라지면 그 社會構造가 變動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支配層의 價値觀이나 「이데올로기」가 아주 다른 社會를 형성하게 되는 예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막스· 웨버」는 서구에서 初期資本主義의 成立이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價値觀적요소(上部構造)가 社會變動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됨을 例示하였다. 이 要因은 계획된 變化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상 社會變動에 관한 몇가지 원인들을 소개했지만 어느것도 社會變動을 완전히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한 要因만을 내세워 그것만이 社會變動의 원인이라고 하는 決定論的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어떤 要因이 얼마만큼 作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2. 變動의 過程에 관한 諸理論

社會變動에 관한 理論중 상당한 부분은 變動의 원인보다도 變動의 過程을 취급한 것이었다. 그 代表的인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構造分化 (Structural differentiation) : 社會變動을 社會構造 및 機能의 分化過程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社會有機體論者들이 특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生物有機體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 構造가 分化되고 그 機能이 分化되는 것처럼 社會도 단순한 社會에서 複雜한 社會로 진화하면서 그 構造와 機能

이 分化된다는 것이다. 初期에는 進化論의인 생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진화론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構造와 機能의 分化”란 개념만을 가지고 社會變動의 過程을 說明하려는 경향이 많다. Durkheim의 分業論이나 Tönnies의 “共同社會와 利益社會”(Gemeinschaft and Gesellschaft), Parsons의 構造分化(Structural differentiation) 등은 모두 社會變動을 分化過程으로 理解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合理化(Rationalization) : 여기서 말하는 合理化는 合理性(Rationality)의 增大過程을 의미하는 것으로 心理學에서 말하는 合理化의 개념과는 다르다. 특히「막스·웨버」(Max Weber)는 西歐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社會變動의 기본성격을 社會組織의 각분야에서 合理性이 增大되고 있는 점이라고 보았다. 그는 官僚制(Bureaucracy)도 合理性의 具現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近代化過程도 결국 合理性의 增大過程으로 이해하려는 學者들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構造分化나 合理化는 巨視的인 觀點에서 社會變動의 過程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그러나 오늘 날에 와서는 社會變動의 일반적추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것 보다 變動의 過程을 몇개의 部分으로 나누어 微視的인 觀點에서 說明하려는 경향이 짙어졌다. 다시 말해서 變動에 관한 一般理論의 구축이나 一般的추세를 說明하는 것보다 變動의 극부적 문제를 다루는 特殊理論의 정립이나 部分的過程의 說明에 더욱 많은 관심을 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심이 표현되는 주요한 領域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① 既存社會體制나 文化에 대한 不滿이 革新 및 變化의 根源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불만을 발생시키는 여러가지 要因들을 규명한다.

② 새로운 價値觀, 觀念, 知識, 技術, 社會組織方法등이 창조되는 과정 즉 革新(innovation)의 과정과 그것을 발생시키는 데 관련되는 要因들을 규명한다.

③ 革新이 社會나 集團內에 전파되고 受容·採擇되는 과정과 그에 관련되는 要因들을 규명

한다.

④ 革新이 채택되거나 變化가 일어남으로서 社會에 미치는 影響을 규명한다.

3. 計劃된 變化와 革新의 受容過程

社會變動에는 自然적, 우발적, 무의도적으로 일어나는 側面과 미리 세워진 計劃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側面이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또한 現代社會에서는 計劃된 變動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計劃된 變化(Planned Change)라 함은 “人性이나 社會體制에 改善을 이룩하려는 目的인 決定에서 유래되는 變化를 말하며 그것은 專門家의 指導를 통해서 이루어진다”(change which derives from a purposeful decision to effect improvements in a personality system or social system and which is achieved with the help of professional guidance).*

여기서 말하는 專門家도 자주 變化촉진자라고 불리워진다. 計劃된 變化는 社會의 각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社會變動의 微視的接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革新(innovation)의 수용과정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革新(innovation)이라 함은 어떤 社會體制에 비교적 새로운 觀念이나 實踐(ideas or practices)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計劃된 變化를 생각하더라도 革新의 受容過程에 대한 이해는 매우 도움이 된다.

革新의 受容過程은 受容의 單位가 個人인지, 어떤 集團 혹은 組織體인지, 社會全體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革新을 수용하는 것은 個人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過程을 거쳐서 革新을 受容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다. 미국의 農村社會學者들은 革新의 受容이 단 한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一聯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보고 소위 단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즉 ① 개인들

* LippittR., Watson J. and WestleyB., The Dynamics of Planned Change,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8

이 새로운 생각의 존재를 알게 되는 認知段階 (Awareness stage), ② 개인들이 革新에 대해서 관심을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를 찾는 關心段階 (Interest stage), ③ 개인들이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 그 革新의 利害得失을 저울질 해 보고 그것을 試驗해 볼지의 與否를 결정하는 評價段階 (Evaluation Stage), ④ 개인들이 革新의 有用性을 결정하기 위해서 小規模로 그 革新을 실제 사용해 보는 試驗段階 (Trial Stage) ⑤ 개인이 革新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使用하는 受容段階 (Adoption Stage)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5단계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의 몇가지를 보면 ① 5단계 모형은 너무 合理的인 人間像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② 그것은 귀납적 추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연역적추리의 산물이라는 점, ③ 革新의 수용이 항상 시간적으로 그와같은 단계를 밟아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 ④ 5단계 모형은 革新受容의 失敗를 고려에 넣지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로저스 (Everett M. Rogers)는 이러한 약점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형의 整立을 시도하였다*. 그도 역시 혁신의 수용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과정으로 구성된 모형을 정립하였다.

① 知識習得段階 (Knowledge): 個人이 革新의 存在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理解를 얻게 되는 단계,

② 說得段階 (Persuasion): 個人이 그 革新에 대하여 友好的인 또는 非友好的인 態度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

③ 決定段階 (Decision): 個人이 革新을 수용

* Rogers E.M. & Shoemaker, F. F., Communication Innovations, The Free Press, 1971

하거나 또는 拒否하는 活動에 종사하는 단계,

④ 確認段階 (Confirmation): 個人이 革新에 관한 자기의 결정을 補強하는 (reinforcement) 단계로서 여기서 補強이 모자라던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게 된다.

확실히 로저스의 4단계 모형은 간단하면서도 拒否 (Rejection)나 中斷 (discontinuance) 현상을 고려에 넣고 있다는 점에서 5단계 모형보다는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도 순서 (Sequence)를 너무 강조하였다는 점, 중단 (discontinuance)행위에 관한 개념구성의 모순, 相反된 이론의 무리한 절충등 문제점들이 있다.

보구 (Donald J. Bogue)도 家族計劃을 하나의 革新으로 보고 그의 受容을 說明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의 모형은 ① 知識 (Knowledge) ② 動機賦與 (Motivation,) ③ 態度 (Attitude) ④ 合法化 (Legitimation) 또는 社會的支持 (Social support) ⑤ 自己參與 (Self-referral) ⑥ 受容 등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인들간의 시간적순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 질 때 革新은 수용되고 그렇지 않을 때 拒否 또는 中斷行爲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모형도 6단계 보다는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ogers의 모형을 좀더 세분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수용, 거부, 중단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상으로 革新의 수용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몇가지 模型을 간단히 소개하였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模型 (model)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형들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앞으로 경험적검증을 거쳐 후에야 혁신의 수용에 관한 이론의 整立이 가능할 것이다.

◆ 회원여러분들의 갱신면허증은 보사부의 업무과다로

지연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